

우리나라 野山開發의 오늘과 來日

農村振興廳 農工研究官
韓 旭 東*

1. 野山開發의 必要性

오늘날 우리는 왜 野山開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問題는 一言之 蔽해서 食糧의 自給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不可缺한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勿論 食糧의 自給을 爲하여는 單位面積當 生産性 向上, 土地利用率 提高, 食生活改善, 食糧의 消費節約 등이 考慮될 수도 있으나 窮極의으로 이들만으로는 到底히 解決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앞으로의 우리나라 食糧事情으로 展望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1~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1962~1971)을 通하여 確實히 劃期的인 經濟發展을 期하고 全體國民의 所得도 크게 增加하여 왔다. 그러나 食糧事情만은 生産面에서 自給을 이루지 못하고 莫大한 量의 外穀을 導入하여 오고 있어

앞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모처럼 우리가 最大의 힘을 傾注하여 이루어 나가고 있는 經濟發展도 크게 蹉跌을 가져올 念慮마저 있는 實情이다.

그럼 여기서 食糧을 먹어야만 生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人口動態와 食糧生産의 基盤要素가 되는 耕地面積의 變動狀況 및 糧穀의 需給狀況을 살펴보고 이와 結付시켜 面積의 外延的 擴張을 爲한 野山開發의 必要性을 檢討하여 보고저 한다.

우리나라의 人口는 다음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3年末 現在로 3,290萬名으로서 1964年度의 2,396萬名에 比하면 10年間에 496萬이 自然增加하였으며 이러한 趨勢로 增加한다면 西紀 2,000年度에 가서는 無慮 6,200萬名으로 늘어남다는 計算이 된다.

表 1. 우리나라의 人口增加狀況 (單位: 千名)

年 度 別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總 人 口 數	27,678	28,327	29,160	29,541	30,171	30,738	31,435	31,828	32,360	32,905
年 度 別 增加數		649	833	381	630	567	697	393	532	545
累 計 增加數		649	1,482	1,863	2,439	3,060	3,757	4,150	4,682	5,227

註: 資料 한국통계연감, 1974. 경제기획원

다음 食糧生産의 絕對要素인 耕地의 年度別 變動狀況을 보는데 表 2와 같이 1964年度의 2,171千ha에서 1968年度에는 2,318千ha로 4年間에 147千ha의 增加를 보였으나 1968年度를 고비

로 漸次 減縮되어 1973年度에는 2,241千ha로 5年間에 77千ha가 減少되었다. 近年에 와서 農耕地面積이 減縮되어 가고 있는 現象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과 더불어 工場, 道路, 敷地, 住宅

* 土木技術士(灌溉排水 및 農地造成)
* 農學博士

等으로 蠶蝕되어 가는 農地가 같은 期間內에 있어서의 擴大되는 耕地面積보다 더욱 많았다는 證左라고 보겠다.

한편 이러한 與件下에서 最近 12年間の 우리나라 食糧需給事情을 보건데 다음 表 3에서와 같이 1962年度에는 需要量 4,650千噸에 對하여 供給量은 4,352千噸으로 298千噸이 不足하고 自給率은 93.6%인데 反해 1973年度에는 需要量 12,443千噸에 供給量 9,641千噸으로 2,802千噸이 不足되어 自給率은 77.5%로 62年度에 비해 16.1%나 低下되었다.

表 2. 年度別耕地面積 (單位: 1,000ha)

年度別	耕地面積			前年 對比	1968 年度 對比	備 考
	畝	田	計			
1964	1,261	910	2,171	0	△147	△減
65	1,286	970	2,256	85	△ 67	
66	1,287	1,006	2,293	37	△ 25	
67	1,291	1,021	2,312	19	△ 6	
68	1,289	1,029	2,318	6	0	
69	1,283	1,028	2,311	△ 7	△ 7	
70	1,284	1,033	2,317	6	△ 1	
71	1,265	1,006	2,271	△ 46	△ 47	
72	1,259	983	2,242	△ 29	△ 76	
73	1,263	978	2,241	△ 1	△ 77	

註: 資料: 농림 통계연보 1974.

表 3. 우리나라 年度別 糧穀需給現況 (單位: 1,000톤)

區 分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需 要 量	4,650	4,696	5,366	6,080	7,800	9,127	9,718	10,475	11,391	12,069	12,651	12,443
供 給 量	4,352	3,219	4,818	5,880	7,245	8,608	8,507	8,254	9,475	9,859	9,975	9,641
不 足 量	298	1,477	548	200	555	519	1,211	2,221	1,916	2,210	2,656	2,802
自給率(%)	93.6	68.5	89.8	96.7	92.9	94.3	87.5	78.8	83.2	81.7	78.8	77.5

註: 資料 한국통계연감, 경제기획원

이에 따라 不足糧穀을 補充하기 爲하여 外穀을 導入한 狀況을 보면 다음 表 4에서와 같이 1962年度에는 498千噸이었던 것이 73年度에는 3,270千噸으로 無慮 2,772千噸이나 增加하게 되어 外穀導入量이 漸漸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75年度에도 政府에서는 8億\$ 相當의

外貨를 糧穀導入에 投入할 것이 計定되었다고 한다. 1976年度에는 多幸이도 1975年 作況이 “統一”의 普及과 더불어 豊作을 이루어 3,200만 石을 突破할 것이 豫想됨으로 이에 따르던 外穀 導入量이 半減될 것도 豫測은 되나 그래도 많은 外貨가 糧穀導入에 消費될 것만은 틀림없다.

表 4. 年度別糧穀導入量 (單位: 1,000)

年 度 別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導 入 量	498	1,318	916	669	523	1,100	1,497	2,336	2,115	2,883	3,210	3,270

以上과 같은 人口의 增加, 耕地絶對面積의 現狀維持, 導入糧穀의 增加等 一連의 社會經濟的인 事實은 우리나라 經濟發展을 爲하여 耕地의 外延의 擴張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最近 惡化一路를 걷고 있는 世界食糧事情은 이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 있는 實情이다.

爲하여 必要不可缺한 것이며 이를 爲하여 野山 開發은 現在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가장 最善의 것으로 見解된다.

2. 野山開發의 現況

가. 開墾實績

食糧增産을 爲하여 近視眼的으로 볼 때는 單位面積當生産性 提高, 既存耕地의 利用率 向上 등이 優先할지 모르나 遠視眼的인 次元에서 볼 때는 亦是 耕地의 絶對面積確保가 國家百年大計를

우리나라의 開墾事業은 1956년까지는 一部 農民들 自力에 依하여 散發的이며 小規模의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1957년부터 비로소 政府政策面에

反映되어 農耕地 擴充策으로 推進되긴 하였으나 亦是當時는 開墾技術의 未熟 또는 財源의 未洽 등으로 結果的으로 1957~1961年間的 實績이 少하여 尙 總 7千ha에 不過하였다. 今後 1962年부터 政府에서는 開墾促進法을 公布하고 1967年에는 이를 農地造成法으로 代替하는 등 耕地 擴大事業을 制度面에서나 經濟的 面으로 相當히 뒷받침을 하게 이르러 結果的으로 다음 表 5에서와 같이 相當한 外形의인 面積의 擴大는 보게 되었으나 이들도 亦是 大部分은 小規模의 散發的인 開墾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地力增進에 對한 措置가 未洽하였기 때문에 生産性이 낮아 所期의 食糧增産에는 크게 寄與하지는 못하였다.

表 5. 開墾 實績 (1957~1973)

年 度 別	面 積	事 業 費
1957~1961	7, 117ha	158百萬元
1962~1966	110, 275	5, 337
1967~1971	42, 045	3, 221
1972~1973	1, 741	596
計	161, 178	9, 212

나. 앞으로의 開墾事業 展望

從來의 開墾이 散發的이며 小規模開墾이었던 것에 反해 今年度부터의 開墾은 團地化開墾 다시 말해서 大單位(1團地當 100ha以上) 開墾으로 方向이 바뀌어져 간다는데 特色이 있다.

施工主體도 지난 1973年 4月 11日 公布된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따라 農業振興公社內에 새로 設置된 農地擴大開發技術團에서 專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技術的面으로나 制度上으로 相當히 活潑하게 推進될 것이 展望된다.

關係 政府當局者말에 依하면 野山の 總 開發對象面積은 아직 確定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現在까지 既存 調查資料가 各己 所管部署別로 事業目的에 따라 그 調查基準이 다르고 調查年度도 相異하기 때문에) 大略 “山地利用區分圖”上에 나타난 相對林地 321千ha와 近似한 面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于先 今年中에는 全北 高敞地區 1, 000ha를 包含해서 全國的으로 總 65個地區 1, 600ha의 野山을 農地로 開發할 計劃이라 하며 이를 爲하여 61億원

의 財源도 確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來年부터는 每年 25, 000ha式 1次計劃 期間인 80년까지 모두 156, 000ha를 開發할 計劃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開發計劃의 着實性을 爲하여 開墾對象地의 基本調査도 併行해 나간다고 하니 앞으로 確實한 開墾可能地의 全貌는 이에 따라 밝혀질 것으로 期待된다.

다. 開墾地에서의 生産效果

開墾에서는 傾斜度, 土壤條件等에 따라 田作物, 果樹木, 桑木, 草地等 栽培作目이 實質的으로 一律치는 못하겠으나 于先計算하기 便하게 앞으로 總 開墾豫定面積을 30萬ha라 보고 이에 모두 麥類를 栽培한다고 假定해서 食糧生産量을 推算하여 보면 開墾地의 生産量을 當分間 30%로 분다고 해도 現在의 麥類의 10a當 生産量이 225kg이므로 225kg의 30%는 67kg, 즉 1ha當이면 670kg, 따라서 30萬ha을 開墾했다고 하면 $670 \times 30萬ha = 2億 100萬kg$ 가 增産이 되는 셈이 되고 50%만 生産된다고 하면 33萬9千kg, 즉 237萬石이 增産이 된다. 3~5年後 正常軌道에 오른다고 하면 570萬石의 食糧이 生産되는 셈이 된다.

4. 野山開發과 우리의 할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政府에서는 食糧自給의 不可避性을 勘案하여 莫大한 財政과 人力을 傾注하여 野山開發을 着手하고 있으니만큼 이 時點에서 우리는 本 事業의 成功的인 發展을 爲하여 무엇보다도 農業者가 收支打算이 맞는 營農을 永續해 나갈 수 있도록 諸般與件을 造成시켜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經濟的이며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는 開墾工法의 開發, 土壤保全工法, 農法地力增進方法等을 研究發展시켜 나가는 한편 開墾地의 維持管理, 土壤改良, 作目的 選定, 農法等을 科學的으로 農民에게 周知시키고 兼하여 新墾地에는 醫療, 教育, 交通, 電氣等 公共施設도 最大限設置하여 모처럼의 開墾地가 廢耕地化되거나 農民의 營農意欲의 減退現象이 일어나지 않도록 細心한 努力을 傾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